



■ 제주현대미술관 새 전시 눈길... 잇따라 관객맞이

제주의 옛 풍경, 아름다움 이면의 이야기

제주현대미술관이 새 전시로 단장을 마치고 잇따라 관객과 만난다.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임형섭 작업 성과 조명=미술관은 9일부터 본관 특별전시실에서 2023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임형섭: LHS 475b'을 진행 중이다. 연례적으로 개최해오던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가 중심이 된 단체전 형식의 '지역네트워크 교류전'에서 올해는 개인전 형식으로 선보이고 있다. 작가의 작품 세계와 입주기간의 작업 성과를 보다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함이다.

2023년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임형섭 작가는 제주에서 살아오면서 관찰한 제주의 복합적 상황과 표면적 아름다움 이면의 이야기를 5점의 영상 및 사운드 설치 작품으로 풀어냈다.



임형섭 작 '복합적 풍경'



여운혜 작 '까마귀 오디세이'

'LHS 475b'는 약 40.7광년 떨어져 있는 별 'LHS 475'를 공전하는 지구형 행성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확인된 최초의 외계 행성이다. 전시명은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제주도의 고립된 상황을 'LHS 475b'라는 행성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세계와 조우=미술관 본관 기획전 시설에선 오는 12일부터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2024 뉴 라이징 아티스트(New Rising Artist)'가 예정돼 있다.

1회 전시인 2020년 '불완(不完)의 꽃', 2회 전시인 2022년 '탐색자'에 이어 올해 '부산물'이란 제목을 달았다.

전시 '부산물'에는 제주 입도 후 일상의 조각들을 그리는 강수희와 전통적 무신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구지안, 재난 이후의 삶을 그리는 김승민, 일상에서 사



박광진 작 '제주'

용되다 버려진 것을 수집하는 여운혜, 천과 바느질 작업으로 응축된 감정을 표현하는 함현영이 참여한다.

미술관은 "삶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일상과 내면에 일어나는 균열의 신호들을 다채로운 이미지로 담아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면면을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전시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이어진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는 예술의 힘=제주현대미술관 본관에선 9일부터 한국화단의 사실적 구상화를 이끌어온 박광진 화백의 상설전 '원풍경: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가 관람객을 맞고 있다.

이번 전시에선 박 화백이 기증한 149점의 작품 중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제주 원풍경을 담은 21점의 회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1964년부터 한라산, 돌담, 초가마루, 유채꽃, 억새밭 등 제주의 자연 생태와 풍광을 오랜 시간에 걸쳐 재해석하고 변주해온 박 화백이 점차 사라져가는 옛 제주 풍경과 그 고유의 분위기를 섬세하게 포착한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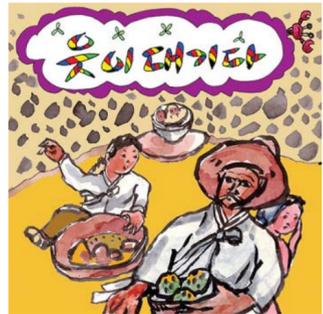
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제주 원풍경에 대한 애뜻한 회고와 함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예술의 힘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내년 3월 2일까지 이어지는 전시는 7~9월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월 이후엔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한판 <411>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맨, "야오달아, 근긴 들어보라. 저번이 골은 속담 '자랑 꾸디 쉬인다.' 영하는 말을 골았주만 이번인 '찬밥 두고 즐 아니온다.' 영하는 속담을 골아주마. 이긴 어떤 하찮은 걸 냉겨 텅 잊에 붙지 못 하영 하는 걸 놀림으로 하는 말이주. 경하고 어떤걸 먼 먹영 치우거나 썩 웃이대겨불거나 하지 아니하영은 못즈음 씹을 못하는 것이여. 요하로기 오맹이가 범벅 먹단 거 어디 이신이 막 훗양나사영 울어나지 안 하영사게. 누님신디 막 웨울르명 범벅 먹단 거 내노랭 하국 단막 먹어사 흘 건디 하영 어명 하영사게."

제주어 풀이 *야오달아 : 아이들아 *근긴 : 애기 할게 *꾸디 : 골에 *골았주만 : 말했지만 *즐 : 잠 *골아주마 : 말해줄게 *냉겨 텅 : 남겨 두어 *잊에붙지 못 하영 : 잊어버리지 못 해서 *하는 걸 : 하는 것을 *먼 먹영 : 다 먹어서 *썩 : 썩어서 *웃이대기다(웃이대다, 웃이대기다, 웃이대다, 웃이대기다, 웃이대다) : <음직>물건을 다 없이 해버리다 *웃이대겨불거나 : 없애버리거나 *하지 아니하영은 : 하지 안해서는 *못즈음 : 못건디는 *먹단 거 : 먹던 거 *훗양나사영 : 찾아나서면서 *안 여사게 : 안 그랬나 *범벅 : <이름>가루에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같이 넣어 익힌 음식 *웨울르명 : 소리치 르면서 *범벅 먹단 거 : 범벅 먹던 것 *내노랭 하국 : 내노라고 하고 *단막 : 다, 전부 *먹어사 흘 건디 : 먹어야 할 것인데 *낱들센 곤지 안 흘데강? : 낱들라고 말하지 안 했어요? *범벅이영은 : 범벅하고는 *범벅이라났수게 : 범벅이었지요

고재만 화백

제주문화예술재단 새 이사장 누가 될까

신임 이사장 공모 29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현 김수열 이사장의 임기 만료를 한 달 여 앞두고 새 이사장 선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재단은 오는 29일까지 제12대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제11대 김수열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공모는 별도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진한다. 임원추천위원회 지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명의 임원 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재단 이사장은 도지사의 임명을 받고 취임한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며, 경영성과에 따라 1회 연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민속자연사박물관 '어승생의 봄' 상설 상영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어승생오름의 봄 풍경과 생동감 넘치는 소리를 담은 '어승생의 봄' 영상을 상설 상영한다. 영상은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지난 4월 'storyA 부산'에서 아모레퍼시픽과 공동으로 개최한 '어승생오름, 자연을 걷다' 전시에서 처음 공개돼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어승생의 봄'은 숲(Forest), 빛

(Light), 숨(Breath) 3가지 주제로 어승생오름의 풍경을 담아냈다.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고요한 숲과 나무, 그 안에 자리잡은 이끼와 식물들, 함께 노래하는 새들과 작은 생명을 비추는 따스한 빛의 온기를 통해 어승생오름의 자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영상은 박물관의 시청각실 '모다들영관'에서 상설 상영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이수지 작가와 함께하는 제주도립미술관 여름특강

제주도립미술관이 그림책 작가 이수지와 함께하는 '시민 교양 강좌 여름 특강'을 준비했다.

이수지 작가의 에세이 '만질 수 있는 생각'을 중심으로 창작 과정과 그림책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될 이번 강좌는 도내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오후 2~4시 도립미술관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수지 작가는 한국과 영국에서 회화와 북아트를 공부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림책을 펴냈다. 특히 책의 물성을 이용한 작업과 글 없는 그림책의 형식으로 아이들의 놀이와 에너지를 책에 담아내는 독특한 작품 세계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 '블로나 라가치상', '인촌상', '한국출판문화상', '뉴욕 타임스 그림책상' 등을 수상했다.

강좌 신청(선착순 150명) 이달 10일부터 미술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오은지기자

축 임
CONGRATULATIONS

서귀포시장



오순문

서귀포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북초등학교 14회 동창회 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서귀포시장



오순문

서귀포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서귀포시새마을회 회장 김경민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협의회 회장 박두홍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회장 나성순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서귀포시협의회 회장 김용관
새마을문고중앙회서귀포시지부 회장 송춘화

축 임
CONGRATULATIONS

서귀포시장



오순문

서귀포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인철 외 회원 일동

축 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2과장



고현주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2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일동
(현석화, 수민, 수희)